



“더 강해졌다”

“승리 지키겠다”

KIA 타이거즈 전상현이 팀 승리를 지키기 위해 된다. 지난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전상현이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 '미친 불펜' 한 축 전상현의 각오 아프지 않아 좋지만 욕심 때문에 만족 몰라 불론 적게 하고 개인 최다 홀드 '16' 넘고파

“미쳤다”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KIA 타이거즈의 불펜에서 전상현이 ‘홀드’를 위해 땀을 흘린다. 올 시즌 KIA를 우승후보로 꼽게 만든 요인 중 하나는 탄탄한 불펜이다. 시즌 전부터 기대 받았던 KIA 불펜은 시즌 시작과 함께 감탄사를 부르고 있다. 23일 키움과의 개막전에서 2점 차 승리를 완성했던 KIA 불펜은 26일 롯데전에서는 1점의 승리를 만들었다. 뒤에서 불펜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내야수 박찬호도 “우리 불펜 미쳤다. 좌우사이드암이 150

km를 던진다. 작년에는 그렇게 불펜이 좋다고 생각 못 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박수를 보냈다. 전상현이 묵직한 공으로 승리로 가는 길목에서 기싸움을 해주었다. ‘막강 필승조’의 일원으로 뛰고 있는 전상현도 인정하는 불펜의 힘. 전상현은 “작년에는 강하다고 했지만 작년부터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꾸준히 가야되겠지만 구성이 나 쓰임새를 봤을 때 좌완도 많고 우완, 사이드도 골고루 있다”며 “더 잘하니깐 좋고 다들 느끼는 것으로 ‘역대급으로 좋다’이다.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가장 좋은 것 같다. 다들 자기 역할 잘 하다보면 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전상현은 올 시즌을 위해 캠프 기간 ‘나를 찾는’ 자신과의 싸움을 했다. 전상현은 캠프를 치르면서 “다치고 나서 예민해지고 생각도 많아졌다. 작년도도 성적으로는 좋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생각이 많았다.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 안 한다. 과정은 안 좋은데 운이 좋아서 막을 수도 있다. 경기도 경기지만 원하는 구위가 나와야 한다”며 “물론 결과도 중요하긴 하다. 내 몸을 잘 이용해서 던져야 하는데 그게 가능적으로 떨어졌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지금은 하나 하나 던질 때마다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고민을 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상 이전의 모습을 지우고 현재에 맞게 최선의 모습을 찾는 게 전상현에게 숙제가 됐다. 전상현은 “예전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더 복잡해

지니까 지금 몸에서 더 좋게 만들자는 생각이더라”며 “코치님들이 생각이 많아 보인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비우고, 또 다른 나를 찾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캠프에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시즌을 준비한 전상현은 기본 좋게 새 시즌 스타트를 끊었다. 전상현은 “지금도 답을 찾고 있다. 최근 몇 년 캠프하면서 올해가 가장 좋은 느낌이었다. 일단 아프지 않으니 좋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만족을 잘 모른다”고 웃었다. 전상현이 꿈꾸는 완벽한 피칭은 무엇일까? 전상현은 “삼진 욕심이 있다. 타구 방향, 정타도 많이 본다. 정타를 맞아서 아웃을 잡느냐, 아예 타 이밍이 안 맞아서 죽느냐 이런 것도 생각한다. 항상 올라가서 정타를 안 맞으려고 한다. 그런데 요즘 (타격) 기술도 좋아지고 정타를 안 맞을 수는 없다. 또 내가 그렇게 구속이 빠르지 않고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 준비는 잘하고 있

다. 스피드도 시범경기 때도 그렇고, 이맘때 이렇게 나온 적이 없다. 스피드도 잘 나오고 있고, 잘 유지해서 부상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시즌 전상현은 ‘홀드’에 욕심을 내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상현은 지난 시즌 64경기에 나와 58.2이닝을 소화하면서 2.15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 3패 13홀드 1세이브를 기록했다. 전상현은 “지난 시즌에는 운이 좋아서 승을 많이 했다. 그동안 홀드 욕심이 없었는데 내가 많은 홀드를 하면 팀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좋으니까 올해는 홀드에 욕심내겠다. 개인 최다 홀드(16) 기록을 넘어서 많이 하고 싶다. 불론 적게 하면서 이기고 있을 때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우승후보라고 하는 걸 많이 봤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서 올해 정말 기대가 된다. 한국시리즈에서 던지고 싶다. 내가 잘해야 한다. 역할 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인 빅리거 ‘힘찬 출발’

데뷔전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내셔널리그 타격왕 후보 올라
예비FA 샌디에이고 김하성
2년 연속 ‘골드 글러브’ 도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은 2024년 저마다 목표를 가슴에 품고 그라운드에서 나선다.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꿈에 그리던 빅리그 무대 데뷔를 눈앞에 두고 있고, MLB를 대표하는 내야수로 성장한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FA(자유계약선수) 대박’을 꿈꾼다. 박효준(27·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은 시범경기 맹타로 2년 만의 개막 엔트리 진입을 눈앞에 뒀으나 일단 마이너리그로 내려간다. 고우석(25·샌디에이고)과 최지민(32·뉴욕 메츠)도 마이너리그, 배지환(24·피츠버그 파이리츠)은 부상자 명단(IL)에서 개막을 맞이한 뒤 빅리그 재입성을 꿈꾼다. 올 시즌을 앞두고 6년 총액 1억1300만 달러(약 1515억원)짜리 대형 계약을 체결한 이정후는 29일 MLB 데뷔전을 치른다. 상대는 KBO 키움 히어로즈 선배이자, MLB를 향한 꿈을 본격적으로 꿀 수 있도록 도와준 김하성의 소속팀 샌디에이고다. 이정후는 MLB 시범경기부터 전재성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26일까지 그의 시범경기 타율은 0.375(32타수 12안타)이며, 홈런도 1개 결정했다. MLB닷컴이 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에서 이정후는 내셔널리그(NL) 타격왕 후보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서울 시리즈 2경기를 통해 먼저 개막전을 치른 김하성에게 2024년은 무척 중요하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

2021년 MLB에 진출했던 김하성은 올 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취득해 시장의 평가를 받는다. 김하성은 지난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MLB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 능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는 골드 글러브(유틸리티 부문)를 받았다. 올해 유격수로 옮긴 김하성이 2년 연속 타이틀을 지킨다면,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이다. 김하성의 팀 동료이자 새롭게 샌디에이고에 입단한 고우석은 서울 시리즈에서 쓴맛을 봤다. 서울 시리즈에 앞서 치른 시범경기에서 5차례 등판해 1패 평균자책점 12.46으로 부진했던 고우석은 서울에서 친정팀 LG 트윈스전에 등판, 이재원에게 홈런을 허용했다. 26일 개막 로스터에서 제외된 고우석은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27일 시애틀 매리너스와 시범경기 최종전에도 등판한 그는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0.2이닝 3실점(1자책점)으로 부진했다. 오클랜드에서 마지막 도전에 나선 박효준은 시범경기 맹타를 휘두르고도 개막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이번 시범경기에서 박효준은 타율 0.471(34타수 16안타), 1홈런, 8타점으로 맹활약했다. 덕아웃에서는 누구보다 힘찬 목소리로 동료들을 응원해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트리플A에서 다시 기회를 엿보게 됐다. 다만 시범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기에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최지민은 시범경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면서 트리플A에서 개막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은 그는 부상 때문에 2023년 많은 경기에 나오지 못한 탓에 보금자리를 쉽게 찾지 못했다. 신분에 따라 연봉 수령을 차등하는 ‘스플릿 계약’을 통해 매츠 유니폼을 입은 그는 시범경기에서 타율 0.189, 1홈런, 5타점에 그쳤다. 왼쪽 고관절을 다친 배지환은 10일짜리 IL에서 몸 상태를 회복하는 중이다. 배지환은 시범경기 7경기에서 타율 0.273(11타수 3안타), 출루율 0.500으로 좋은 활약을 보였으나 부상으로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 /연합뉴스



12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경기. 흥국생명 김연경이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동지’ 김연경-양효진 ‘적으로’

흥국생명-현대건설, 오늘부터 여자배구 챔피언결정전

2012년 런던 올림픽,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배구의 4강 진출을 함께 일군 김연경(36·흥국생명)과 양효진(34·현대건설)이 처음으로 V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격돌한다. 김연경은 7번째, 양효진은 5번째 챔피언결정전을 치르지만 그동안 둘은 챔피언결정전에서는 맞붙지 않았다.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이 처음 챔피언결정전에서 만난 2006-2007시즌에는 양효진이 프로로 입문하기 전이었고, 2010-2011시즌에는 김연경이 국외 리그에서 뛰고 있었다. 이제 30대 챔피언을 가리는 무대에서 김연경이 때리고, 양효진이 앞을 가로막는 장면을 볼 수 있다. 2023-2024시즌 V리그 여자부 정규리그에서 현대건설(승점 80·26승 10패)은 흥국생명(승점 79·28승 8패)을 승점 1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해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다. 흥국생명은 26일 열린 PO 3차전에서 정관장을 꺾고,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확정했다. 두 팀은 28일 수원체육관에서 벌이는 1차전을 시작으로 5전 3승제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배구 팬들의 관심은 김연경과 양효진에게 쏠린다. 김연경은 V리그 우승 3회(2005-2006,

2006-2007, 2008-2009)를 보유했다. V리그 우승을 차지할 때 3차례 모두 챔피언결정전 최우수 선수(MVP)에도 올랐다. 국외 리그 생활을 마치고 V리그로 돌아온 뒤에도 2020-2021, 2022-2023시즌에 챔피언결정전 무대까지 올랐으나,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김연경은 “이렇게 또 기회가 왔으니, 이번에는 꼭 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2010-2011, 2015-2016시즌에 우승을 차지하고, 2015-2016시즌에는 챔피언결정전 MVP에 오른 양효진도 우승을 열망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전까지 5번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고, 두 번 우승했다. 사실 현대건설은 두 번 더 챔피언결정전에 나서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기회를 날렸다. 2019-2020시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녀 정규리그가 조기 종료되면서 당시 여자부 1위였던 현대건설은 정규리그 1위 타이틀만 달았다. 한국 여자배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창’ 김연경과 ‘가장 견고한 방패’ 양효진의 첫 챔피언결정전 맞대결은 2023-2024 V리그 최고 명장면으로 남을 수 있다. /연합뉴스